

社說

3자협의체 논의로 끝나선 안된다

서울캠퍼스 교수, 학생, 직원대표들이 우리 학교 제도 전반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구제와 방안 모색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다름아닌 지난 89년 등록금협상 과정에서 처음 제기되어 학내 여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의 진척이다.

3자 협의체란 학원 구성의 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 대표의 중, 장기 발전안 및 대학 평가 인정제 준비, 교육과정 개편, 예산 편성 등 학내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명명된다.

이를 위해 각 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6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네번의 회의를 통해 3자 협의체의 명칭, 권한, 구성 형태 등의 주요 골자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논의를 거치는 동안 각 대표자들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구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의의 공유에 정적 조응한 협의체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점도 도출해 내지 못했다는 데에 논의의 실상성이 있다.

총학생회는 협의체의 명칭을 '대학자치협의체'로 하여 이 기구에는 지금의 3자협의체 학과장급을 참여시켜 명실상부한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 구성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과장급은 의견점을 배제한 학내 계층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기구로서의 '대학자치협의체'를 제의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은 겹치며 충돌하지 않을 듯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학생회의 참여권과 학과장급의 영향력이 과격적인 양보 내재 제도적 조건의

해결 없는 공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학내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 받으면서도 우리 대학이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사행정을 꾸리고자 하는 것일 바라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이고 공식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구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양측은 구성원들에게 3자 협의체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천명했듯이 이번만큼은 그들에게 미약하나마 지난 몇년동안 나왔던 반목적인 합의 이외에 구성원들이 장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층 진보된 논의의 생산물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학과장급과 총학생회는 학내 구성원들의 이익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 즉 교육환경 개선, 교원복합, 민주적인 예산결정, 교과과정개편 등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합의되었던 수준을 넘어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사안을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기구 구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이런 소규모 기구는 자율적으로 결의권적인 연구를 통해 장기 발전계획안 수립 및 결정에 참고부족한 의견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며 또 이두에는 담당분야를 기초로 교육행정, 예산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대학의 전반적인 제도 중에서 민주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에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구성을 규정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다시 늦춰진 수원도서관 개관

지난 27일로 예정되었던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개관이 오는 10일로 연기되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 전이행동을 요구하는 학생회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학교측의 통상적(2)한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도서관 개관 연기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10월 행사일정의 혼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서관 개관식을 중심으로 18일부터 4일간 진행될 예정인 경희대생 대제전(2)한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같이 일정에 혼란이 발생된 원인은 도서관 개관연기에 대한 좀더 빠른 인식과 이후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불편을 방지한 학교측의 유유약단한 태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상급이 예상되고 지연되었을 경우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교로운 등을 제쳐놓는 배려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한 결과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도서관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비된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공사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도서관업무 정상화의 지연은 공사지연을 고려하지 않은 설무는 부단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유초에 타결된 도서관 9월 개관이 라는 합의사안에 대한 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있다. 현재 도서관 1, 2층 열람실과 지하 개가 열람실은 98%의 공중으로 오는 10월 입주는 가능할 것으로 보 여지지만 3, 4층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이반달 말쯤이나 입주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도서관 전체의 완공은 11월 초나 되어서 실현되어질 전망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합의사안인 9월 개관이 가능했던 것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학교측은 지난 공사기간중에 기밀내 개관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합의서의 불이행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결과를 파생시켰다.

자정인의 정이라는 대학에서 공신력을 지닌 조직인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하며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안하느니 못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수원캠퍼스 도서관은 동양학대라는 그 규모와 용량과 도서관사와 시스템에 의한 이용에 편리함을 고루 갖추고 명실상부한 대학의 실장부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한다. 이와 함께 외형적인 규모와 비례하여 사서비지 등의 내용적인 측면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공부의 기도와 역량이 다양한 만큼 학생들의 기대 또한 클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기대가 무너졌을 경우 실망감은 더욱 크게 학생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중앙도서관 앞문'이라는 화려한 빛을 바래게 하는 모습들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요즘을 생각해 보자. 지

세월

'2차 사정개혁'의 배경과 실효성

여름과 가을의 뚜렷한 차이만큼 회비의 국민도 무척이나 가파른 모습이다. 지난 계절 내내 주사와 사상으로 추가된 올더민 검찰이나 대법원도 막상 공무원들의 거액의 청원 앞에서는 지지부진 지리멸렬하다.

세규형형 사건 수사 최면에 서부터 수사속도를 늦추는 기법이 완연하다. 사건의 범위와 고위 공직자들에 이르는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지지부진함에 맞춘 사회에서는 어수선했던 정정을 향해 치달고 있다. 제독복복으로 인한 민심의 위배도 때마침 터져온 엄격한 입찰마들의 얼굴에 다시금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차에 정부는 작은 세규형형 출범의 가장 상징적인 일적으로 남아있는 사정의 할발을 다시한번 사용하려 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고위직 공무원들에는 대한 전향적인 재산공개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93년의 사정개혁을 상기한다면 정부개혁 계획과도 있는 제2의 사정개혁은 물론이고 상상의 크게 높아질지도 모른다. 물론 그 와중에 인정받지 못하고 잠잠을 잊을 사람들 이 많을지도 모른다.

언론에서 필요성 제기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의 보도매체에서도 검찰권을 부속케 할 정도로 언론 이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정의 개혁은 일단 대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고 있음이 확실하다.

하지만 지난해의 사정개혁의 배경은 지난 시간의 폭만공이나 그 성격도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세력유대로 써버려 들어 버려진 언론인들만으로는 93년에도 여의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만으로는 웬지 그 처방이 미약해 보인다.

진부한 예기로 통렬지도 모르지만 한때는 헌치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있었고 여당의 실세였던 민주계 당에서도 행정장관을 겸비한 솜씨였다는 정부와 여당이 느끼는 위기감은 합당해서 얘기하듯 평소적인 자조와 동경은 아닌 듯하다.

영화로 치자면 유명한 스타의 활극과 스릴, 그리고 패강, 게다가 권선징악의 고전적인 매서움까지 겸비한 끝없는 한 편의 영화 못지 않았다.

다시 요즘을 생각해 보자. 지

난해의 사정이 가져다 준 정부에 대한 신뢰감-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북쪽에 못지않은 90%이상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정부주도의 사정개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이 확실하다-이 다시 되살아 날 것인가? 또한 복시부들이라는 유령어가 떠돌만큼 속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수구세력이 이번

언론에서 제기하는 '총체적'이라는 말을 틀려서 사용하자면 위기의 성격은 '구조적'이라는 말로도 가능할 것이다.

일파적 대책 안될말

따라서 인건 복구정 세무공무원의 세규형형 사건으로 인해 중폭되는 위기의식은 일파적 대책으로 대응해서는 안될

점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와 박약을 생각하게 한다. 전열병이 창립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행정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내성이 더욱 강해진 세군에 의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난해 이후 각종 권력형 부정부리사건이 터져나왔을 정부

토양을 제공한 것이 아닌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부정적재 재산 물수의 범죄화나 9급 공무원에 이르는 광범위한 재산공개 실시등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단숨에 현 시기의 정국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민심수습을 위해 고지시 없기를 바란다. 바로 지난해의 사정개혁의 열망이 예상외로 커다란 충격을 주며 사회관계 각층은 물론 여당내의 고위직 인사에게까지 치명적인 위태를 가하게 되자 서둘러 사정개혁을 마무리 한 것을 기억한다.

대군다나 마무리 작업의 주체가 바로 사정개혁을 기획하고 실행해 옮긴 바로 행정부의 핵심인사들임을 생각한다면 단순한 아이러니로 돌려볼 수 없는 일일이다.

기지가개는 극우세력

절국 보수세력의 제기와 극우세력의 기지개는 우리사회 전반에 뒤틀림을 일으키는 원인을 또다시 몰고 갔고, 또 우리는 지난해 답답한 심정으로 지켜본 기지가개의 생생한 모습이다.

전향적인 부패와 이로인한 위기는 바로 과거 기득권층이 고개를 들 수 없는, 과거의 권력형 부리가 재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셈이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다시금 권력형 부정부리가 어디선가

직권들의 상습수가 조사를 벌가나 끝없이 인연죄 지를 비추는 바탕에 인연죄 북극형 제무과 사무실은 텅텅 비어있었다.



사정효과 발본색원 여하에 달려 줄잇는 세무비리 필연적 결과

에도 당하고 있을 것인가? 불신이 지나치면 올바른 판단이 가능치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최근의 총체적인 불만과 냉소는 단순히 비리공무원들만을 골라내어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웬지 그 처방이 미약해 보인다.

진부한 예기로 통렬지도 모르지만 한때는 헌치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있었고 여당의 실세였던 민주계 당에서도 행정장관을 겸비한 솜씨였다는 정부와 여당이 느끼는 위기감은 합당해서 얘기하듯 평소적인 자조와 동경은 아닌 듯하다.

영화로 치자면 유명한 스타의 활극과 스릴, 그리고 패강, 게다가 권선징악의 고전적인 매서움까지 겸비한 끝없는 한 편의 영화 못지 않았다.

것 같다. 인연죄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해서 인연죄사건이 사회를 표명하고 정부는 시장을 해명시키고 직접 형량의 범죄를 저지른 몇몇 공무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한편으로 인연죄는 부패가 일소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정부안에서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나 찾아보기는 힘들 것이다. 오히려 인연죄라는 단어 행정기관으로 상징되는 전체 공직자 사회를 대상으로 더욱 철저한 대응책이 전철히 요구되는 것이다.

부패가 만연하기 위해서는 은상이 전체가 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우리가 보기에 부패의 온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듯하다. 우수를 비꼬고 불지는 모르겠지만 공로공로게도 비슷한 시기에 세계각처에서 창립하고 있는 전열병의 원인에 대한 보도는 바로 정부의 부정부패 척

가 보여주는 석연치 않은 태도들이 지금의 조직적인 부패의

(본서부)

